

상담윤리(counseling ethics)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오 송 희 이 정 아* 김 은 하
단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상담윤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상담윤리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위 논문 중에서 상담윤리와 관련된 총 56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 대상, 방법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연도별 논문 수는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제별 동향과 관련해서는 특정윤리주제를 개관한 연구(38.4%), 윤리강령·법·제도 연구(17%),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16.1%),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슈퍼비전 연구(14.3%) 순이었으며, 상담과정/성과연구, 내담자 특성 및 권리연구, 검사 및 도구개발 연구, 이론개발 연구는 각각 3.6%를 차지했다. 셋째, 연구대상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연구방법의 경우, 문헌연구가 전체 연구의 57.1%를 차지하였고, 양적연구(28.6%), 질적연구(8.9%)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상담자 윤리, 상담윤리, 연구동향,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갈등 상황

* 교신저자 : 이정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E-mail : ja1331@naver.com

상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담의 영역과 범위가 점차 확장되면서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다(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9). 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의 상담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 활동으로 상담 과정에서 일정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윤영대, 2006). 상담에서 윤리에 대한 관심은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타라소프(Tarasoff) 사례를 통해서 크게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상담자가 자신이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포다)가 다른 사람(타라소프)을 해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을 때, '비밀유지'라는 상담의 원칙을 깨고, 이 사실을 미래의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느냐의 윤리적 딜레마가 포함된 사건이었다. 이 사례에서 상담자는 학교 경찰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으며, 슈퍼바이저의 자문을 받았으나 피해자(타라소프)와 그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결국 포다는 타라소프를 죽였고, 타라소프의 부모는 위협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상담자를 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른 사람의 일반적 복지와 안전이 문제가 될 때에는 치료자가 비밀유지를 파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키고 있는 윤리적 행위가 그 사회의 법과 갈등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주었고, 이런 갈등상황일 때 상담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최해림, 이수용, 금명자, 유영권, 안현의, 2010; Corey, Corey, & Callanan, 2011). 이후에도 매년 상담 관련 소송은 일어

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그 내용도 다양해져 내담자와 상담자의 인권적, 윤리적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다(최해림 등, 2010).

상담자가 윤리적으로 상담에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 실제에서 만나게 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김옥진, 김형수, 김기민, 장성화, 2011; 최선, 고유림, 박정은, 신예지, 강민철, 2012). 이를 위하여 상담 관련 학회나 상담 기관에서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상담자에게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를 보호하고, 상담자도 보호하며, 상담자의 전문가적 지위와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손현동, 진명식, 유형근, 2008).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동은 상담과정과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전문성을 훼손함으로써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잠재적 내담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궁극적으로 상담분야의 전문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강진령 등, 2009).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제시한 윤리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상담학회(ACA)와 한국상담심리학회(2009), 한국상담학회(2011)의 윤리규정에는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내담자의 복지와 사생활 보호, 다른 전문가 또는 기관과의 관계,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훈련과 교육, 연구자로서의 책임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국상담학회(ACA)의 윤리규정 전문에는 소속 회원들의 윤리적 책임을 밝히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전문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행동 방향을 안내하는 지침서로서의 윤리규정의 목적을 명시하

고 있다(강진령 등, 2009; Kocet, 2006; Welfel, 2006). 이는 미국상담협회(ACA)를 비롯한 미국 심리학회(APA), 미국부부가족치료학회(AAMFT),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등의 윤리규정에서 공통적으로 정의하는 전문가적 정체성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King, 2012). 이렇듯 상담윤리는 상담자의 전문적 정체성의 핵심이며, 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근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Hill, 2004)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이 상담자의 윤리규정은 상담자가 윤리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쉽게도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자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Corey, Corey, & Callanan 2007). 상담자는 때때로 두 개 이상의 윤리적 원칙들이 충돌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거나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때, 소속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나 규정과 상담자의 윤리적 가치가 충돌할 때, 내담자의 권리와 상담자의 법적 책임이 갈등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공윤정, 2008; Knapp & VandeCreek, 2006).

이와 관련하여 Kitchener(1984)는 상담자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 원칙(자율성 존중, 선의, 비유해성, 공정성, 충실성)과 의사결정의 절차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서영석, 최영희, 이소연, 2009; Kitchener & Anderson, 2014), 이후 많은 의사결정모델 개발에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심리학회(APA)와 미국상담학회(ACA)의 윤리규정의 근간이 되었다(Urofsky, Engels, & Engebretson, 2008). 또한 Welfel(2002)은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상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자원으로 윤리적 행동의 바탕이 되는 상담 이론에 관한 문헌들과 전문가 협회에서 제공하는 윤리 규정, 윤리기준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문헌들, 그리고 상담의 실제에서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탐색한 동료 상담자들의 연구와 문헌들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Cottone과 Clause(2000)는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출판된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개관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전문가들(Corey et al., 2007; Cottone & Tarvydas, 2007; Pope & Vasquez, 2007/2010; Welfel, 2006)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델을 발달시켜왔다(공윤정, 2008; 김형수, 김옥진, 2009). 국외에서 상담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이루어진 이와 같은 연구들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 학회의 노력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 미국상담학회 윤리위원회(ACA Ethics Committee)의 경우,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여 회원들의 윤리적 이슈에 관한 질문들에 답변한 내용과 윤리위원회의 교육 활동들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Anderson & Freeman, 2006; Kocet & Freeman, 2005; Sanabria & Freeman, 2008; Williams & Freeman, 2002).

국내에서의 상담윤리 연구 역시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관심이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윤리적 의사결정모델을 제시한 연구(김형수, 김옥진, 2009; 서영석, 이소연, 최영희, 2010)들과 상담자들의 윤리적 상황에 대한 인지실태와 대처 행동에 대해 조사하거나 상담윤리 교육의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연구(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7; 우홍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아동상담에서의 윤리(유재령, 2006a, 2006b; 유재령, 김광웅, 2006a, 2006b), 학교상담에서의 윤리 문제(강진령, 이종연, 손현동, 2007; 이종연, 2005; 최선 등, 2012), 집단상담 윤리(고향자, 김소라, 2008; 박외숙, 2008; 방기연, 2004) 등 특수한 현장에서의 윤리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다양한 상담 영역에서 일반 상담의 윤리 강령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윤리 강령의 마련과 윤리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우홍련 등, 2015; 최선 등, 201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권리와 상담자의 책임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상담자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처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자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하듯이 최근 국내에서 상담윤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반적인 경향과 흐름을 체계적으로 개관한 동향 연구가 없는 시점에서, 상담윤리 연구를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방향을 전망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담자의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상담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물들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1년 이후에 발표된 상담윤리 관련 논문들의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확인하고, 향후 상담윤리의 연구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와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상담윤리 기준의 발달을 촉진하고, 상담자의 전문성과 윤리적 실천행동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중에서 상담윤리와 관련된 총 56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물 선정에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과 한국학술정보서비스시스템(kiss.kstudy.com), 국회도서관(www.nanet.go.kr)에서 주요어를 상담윤리, 상담자 윤리로 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에는 연구자가 상담윤리나 상담자 윤리를 주요어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에서 상담 윤리와 연관이 되어있는 논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모두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 검색된 논문 중 중복되는 동일연구(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복의 경우 학술지 논문으로 분석대상 선정)를 제외한 82편 중에서 주제가 상담윤리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종교적 관점으로 연구된 논문,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논문이 아닌 발표 논문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쳐 학위 논문 12편과 학술지 논문 44편을 합하여 총 56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정 절차

우선,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내용 분석 방법에서의 분류준거 선정 절차에 대해 언급한 상담관련 연구동향 분석의 선행연구들(김은하, 박승민, 2011;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조성호, 2003; 조항, 김계현, 이자명, 2009)의 분석준거를 참고하여 분류범주를 정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을 보고자 하는 연구인가?”라는 질문에 입각하여, 분석대상 연구 제목을 보고 상담윤리와 관계가 없는 논문은 제외하고 최종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했다. 둘째, 두 연구자가 분석대상 논문의 초록과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각자 코딩한 후 함께 재검토하면서 분류범주를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상담전공 교수인 제3의 연구자와 다시 논의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분류 기준 및 평정 기준을 정하였다. 셋째, 설정된 범주들 중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범주가 있는지, 또는 설정된 범주들 이외에 새로이 설정될 범주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자들 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명명된 범주는 수정하거나 제외하였다. 넷째, 분석대상 논문들 중 일부에 1차 분류범주를 적용해보고, 분류범주의 학문적 근거와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과 비교·분석한 후, 논의와 합의를 통해 최종분류범주와 범주명을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한 최종 분류범주는 표 1과 같다.

분류범주는 크게 기초사항(제목, 출판연도, 학술지/학위논문 구분), 연구주제(상담과정/성과연구, 상담자특성, 훈련 및 슈퍼비전연구, 내담자 특성 및 권리연구, 검사 및 도구개발

연구, 특정윤리주제 개관연구, 이론개발연구,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윤리강령·법·제도연구), 연구대상(상담자, 내담자, 상담자·내담자, 기타), 연구방법(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문헌연구)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표 1 참조). 먼저 기초사항은 출판년도에 따른 연구의 빈도와 출판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김은하와 박승민(2011)의 분류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나 지금까지 상담윤리 주제 분류를 제안한 연구가 없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분석대상 논문을 검토하여 도출한 주제를 바탕으로 고흥월, 홍지선, 전호정, 조수연(2015)이 사용한 방식을 참고하여 상담 연구 주제 분류를 제안한 선행연구들(조남정 등,

표 1. 분류범주와 세부사항

분류범주	세부사항
기초사항	제목, 출판연도, 학술지/학위논문
연구주제	상담과정/성과연구
	상담자특성, 훈련 및 슈퍼비전연구
	내담자 특성 및 권리연구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특정윤리주제 개관연구 (윤리일반, 상담자의 윤리적 태도, 의사결정모형, 다중관계, 비밀보장, 사전 동의, 자살개입, 기타)
	이론개발연구
연구대상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윤리강령·법·제도연구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내담자, 기타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문헌연구

2010; 조성호, 2003)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담 윤리 주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제의 명칭은 상담윤리의 주제에 맞게 변경하였다(표 2 참고). 연구대상은 김은하와 박승민(2011)의 네 가지 분류를 사용하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논문을 포함하는 분류는 그 의미가 좀 더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이라는 명칭을 ‘기타’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김은하, 박승민, 2011; 조남정 등, 2010; Creswell, 2003)에서 분류한 세 가지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하고, 김광웅, 최명선, 류진아, 정유진(2006)이 사용한 분류 중에서 상담윤리 연구에 많이 사용

된 문헌연구를 범주에 추가하였으며, 개념도 연구방법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정의한 선행연구(민경화, 최윤정, 2007; 이지은, 2014)를 참고하여 개념도 연구방법은 양적·질적 혼합연구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각 분류범주에 해당하는 연구편수를 평정하였다. 단위 연구마다 두 개 이상의 분류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연구동향 분석 논문들(김은하, 박승민, 2011; 이동혁, 유성경, 2000; 조성호, 2003; Buboltz, Miller, & Williams, 1999)의 평정방법을 참고로 하여, 각 분류 범주에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한 개의 범주만 다

표 2. 연구주제 분류기준 대조 추출표

번호	조성호(2003)	조남정 등(2010)	고홍월 등(2015)	본 연구
1	상담성과연구		슈퍼비전 성과연구	
2	상담과정연구		슈퍼비전 과정연구	상담성과/과정연구
3	상담과정 및 성과연구		슈퍼비전 과정과 성과연구	
4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슈퍼비전연구		슈퍼바이저 특성 연구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슈퍼비전연구
5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내담자 및 일반인들의 지각/태도연구		슈퍼바이저 특성 연구	내담자 특성 및 권리연구
6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			-
7	진로 및 적성연구		-	-
8	연구방법론연구		-	-
9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10	특정주제 개관연구		특정주제 개관연구	특정윤리주제 개관연구
11	이론개발연구		이론개발연구	이론개발연구
12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13	-	소수민족연구 (다문화 연구)	다문화 슈퍼비전연구	-
14	-	-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15	-	-	슈퍼비전 제도, 행정, 윤리	윤리강령·법·제도연구

론 연구의 경우에는 해당 분류범주에 1점을 부여하고, 두 개의 범주를 다룬 연구의 경우에는 해당분류범주에 각 0.5점씩, 세 개의 경우 0.3점씩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평정기준을 가지고 먼저 두 연구자가 각자 분석 대상 논문을 평정하고 코딩한 평정사항을 함께 검토하면서 합의한 다음 일치하지 않는 기준에 대해 제3의 연구자와 최종 합의하여 평정과정을 진행하였다.

결 과

발행연도별 논문 수

발행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2000년대 이전에는 1991년 1편의 학위논문(김은희, 1991)을 시작으로 1998년 2편의 학술지 논문이 발표된 것이 전부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상담윤리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대체로 연평균 1.8편(학위논문 0.23편, 학술지 논문 0.9편) 발행되던 것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상담윤리 연구자들의 공동연구(강진령, 이종연, 손현

동, 2007;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7; 고향자, 김소라, 2008; 고향자, 현선미, 2008; 박외숙, 고향자, 2007; 유재령, 김광웅, 2006a, 2006b, 2008)가 여러 편 증가하면서 논문 편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가장 활발하게 연구물이 발간된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발간 추이를 살펴보면 3년간 매년 7편씩(학위논문 1편, 학술지 논문 6편)의 연구물이 발간되었다.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다양화, 학위논문의 증가로 2009년 이후에는 연평균 3.7편(학위논문 1편, 학술지 논문 2.7편)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 주제별 동향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담 윤리 관련 특정주제에 대한 개관연구가 21편(40.2%)으로 가장 많았고, 윤리강령·법·제도연구가 10편(17.9%),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9편(16.1%),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슈퍼비전연구 8편(14.3%)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과정/성과연구, 내담자 특성 및 권리연구,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이론개발 연구는 각각 2편(3.6%)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장 많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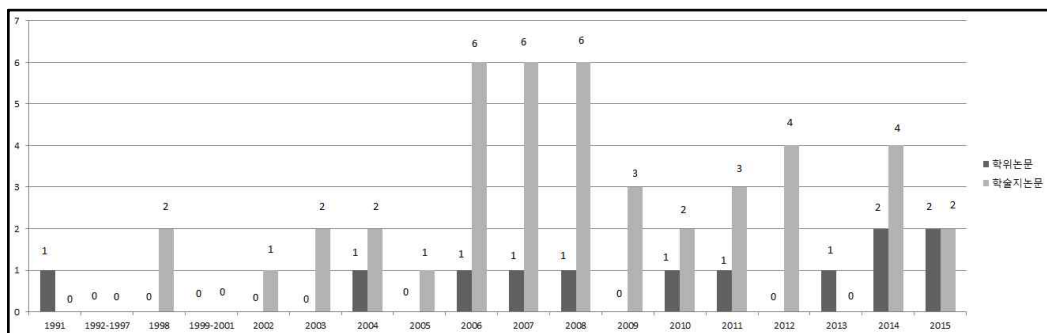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발행 논문 수

표 3. 연구주제별 연구논문 수

	연구주제	편수	백분율	순위
1	특정윤리주제개관연구	21.5	38.4	1
2	윤리강령·법·제도연구	9.5	17.0	2
3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9	16.1	3
4	상담자특성, 훈련 및 슈퍼비전연구	8	14.3	4
5	상담과정/성과연구	2	3.6	5
6	내담자 특성 및 권리연구	2	3.6	5
7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2	3.6	5
8	이론개발연구	2	3.6	5
	합계	56	100	

된 연구는 상담윤리 관련 특정 주제에 대한 개관 연구로 전체 논문의 38.4%(21.5편)를 차지했다. 개관연구의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상담윤리 전반의 여러 주제에 관해 축적된 기존 문헌들을 정리한 윤리일반연구(송동림, 2007; 유영달, 2006; 윤영대, 2006; 이종연, 2005; 이현림, 김영숙, 1998; 최원호, 2004), 좀 더 세부적으로 특정 윤리 주제인 다중관계, 비밀보장, 사전동의에 대한 연구(강진령, 유형근, 2003; 고향자, 김소라, 2008; 고향자, 현선미, 2008; 박외숙, 고향자, 2007; 손현동, 2007, 2012), 윤리적 상담을 위해 상담자가 지녀야 할 전문적인 태도를 다룬 연구(김강일, 2015; 임인구, 2010; 홍기묵, 김광욱, 2012), 상담자들이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제시하는 윤리적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연구(김옥진 등, 2011; 서영석 등, 2009; 신선인, 황혜숙, 2003), 내담자의 자살과 관련한 상담자의 윤리적 문제를 다룬 연구(박미라, 2014; 최해림, 2006), 기타(김태호, 2009; 이향연, 2014) 연구 등이 있었다.

먼저 윤리일반연구의 경우 주제와 상황별로

축적된 기존 문헌들을 분석하였는데, 이현림과 김영숙(1998)은 집단상담자의 자격, 즉 자질을 집단상담의 핵심적인 윤리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집단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이종연(2005)은 학교상담자가 일반상담자와 다르게 겪게 되는 특수한 윤리적 책임에 대해 고찰하였고, 유영달(2006)은 여성 상담자가 대다수인 상담현장에서 남성 상담자가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위기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상담자가 이해해야 할 상담윤리에 관한 선행연구사례를 분석하여 상담윤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윤리 연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었다(송동림, 2007; 윤영대, 2006; 최원호, 2004).

특정 상담윤리 주제를 살펴본 연구들 가운데 강진령과 유형근(2003)은 상담자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병행하는 학교 상담 장면에서 이중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상담교사들이 이중관계의 가능성을 인식

하였을 때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외숙과 고향자(2007)도 이중관계의 딜레마 상황에서 이중관계를 윤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과 한국의 주요 상담관련 학회에서 규정하는 비성적 다중관계 관련 윤리조항을 제시하고 비성적 다중관계의 해로움과 이로움의 근거, 내담자의 이익을 돕기 위한 최선의 절차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였다. 또한, 고향자, 김소라(2008)는 집단상담에서 윤리적 갈등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다중관계와 비밀보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집단상담 실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비밀보장과 다중관계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집단상담자 훈련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향자, 현선미(2008)는 청소년 상담에서 사전 동의가 갖는 의미와 사전 동의에 대한 윤리적 쟁점, 청소년 상담현장에서의 사전 동의 적용방안을 소개하였다.

윤리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자의 전문적인 태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임인구(2010)는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는 실존철학을 기반으로 상담자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도덕적 가치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함을 밝히며 상담자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밖에 상담자의 자기개발을 위한 기본 지침과 윤리적 고려사항을 제시한 연구(김강일, 2015)와 상담자의 자기돌봄의 윤리적 중요성을 피력한 연구(홍기묵, 김광욱, 2012)가 있었다. 한편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담자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론 및 철학적 관점과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는 의사결정모형 관련 연구로는 특정모형을 구체적인 상담사례에 적용하거나(신선인, 황혜숙, 2003), 상담심리학 및 관련 분야에서 제기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개

관한 연구(서영석 등, 2009)가 있었다. 또한 상담중 상담자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내담자 자살을 다룬 연구도 있었는데 최해림(2006)은 자살과 관련한 비밀보장 문제와 자살위험 평가를 할 때 주의할 점, 전문가로서 내담자의 자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박미라(2014)는 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자살사후개입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청소년 자살사건 발생 이후 사후개입의 중요성과 의미를 밝히고 상담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지침들과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기타 연구로 서구식 상담이 아닌 우리나라 내담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적합한 상담을 모색하는 것이 상담의 윤리와 효율성을 높이는 다문화적 접근임을 제시한 연구(김태호, 2009)와 기존 상담 모형들의 한계를 철학 상담의 시각에서 비판하며 철학 상담 윤리모형의 필연성을 주장한 연구(이향연, 2014)가 있었다.

둘째, 윤리강령·법·제도연구는 17.0%(9.5편)로 상담실무와 관련된 윤리강령의 제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들(김미리혜, 1998; 김은희, 1991; 방기연, 2004; 유재령, 2007; 최선 등, 2012), 상담관련 자격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다룬 연구들(곽미용, 이영순, 2010; 최국환, 2014), 현행법에 나타난 비밀보장의 의무와 한계를 고찰한 연구(손현동, 2007), 한국과 미국의 상담윤리규정을 비교한 연구(김화자, 2014)가 있었다. 주요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기연(2004)은 상담윤리 강령 중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이중관계, 전문가로서의 책임,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이 집단상담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고, 손현동(2007)은 비밀보장과 비밀보장 한계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상담자가 알아야 하는 현행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또한 최선 등(2012)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학교상담자들의 윤리강령 사용현황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학교상담학회 윤리강령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했고, 광미용과 이영순(2010)은 자격관련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 상담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는 9편(16.1%)으로 상담윤리 문제 및 갈등에 대한 실태조사연구(최해림, 2002),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주요 윤리적 갈등상황과 갈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조사한 연구(강진령, 이종연, 손현동, 2007; 구승영, 2013; 박한샘, 공윤정, 2011; 우홍련 등, 2015; 유재령, 김광웅, 2006a), 상담자들의 윤리교육과 윤리 의식 실태를 조사한 연구(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7; 우홍련 등, 2015), 사전동의 구성요소의 적합도와 중요성, 그리고 사용실태를 조사한 연구(하혜숙, 조남정 2012)가 뒤를 이었다.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강진령, 이종연, 손현동(2007)은 학교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주된 윤리적 갈등상황과 갈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조사하였는데, 윤리적 갈등상황으로는 내담학생과의 가치관 갈등, 내담학생의 요구존중과 자율성 보장, 상담자 자격유지를 위한 연수와 훈련의 어려움, 동료와 관리자로부터의 상담내용 공개요청, 다른 상담자의 윤리 위반 발견, 내담학생이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을, 대처방법으로는 윤리강령보다 상담자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자 윤리교육과 윤리인지 실태를 조사한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2007)은 학교 상담자들은 ‘심리검사,

‘비밀보장의 예외’, ‘자격유지’, ‘전문직에 대한 책임’, ‘이중관계’, ‘아동학대’와 관련한 윤리내용은 잘 인지하고 있으나 ‘비밀보장의 원칙과 학부모의 권리 간 갈등’, ‘비밀보장 원칙’, ‘다른 전문가와 이중으로 하는 상담과 관련된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윤리기준과 관련하여 하혜숙, 조남정(2012)은 개인상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전 동의의 구성요소와 적합도, 중요도, 사용여부 등을 알아보고 살펴보았는데 사전 동의 요소로 선정된 14개 항목 중 상담과정의 비밀보장, 상담절차, 내담자의 자세, 연락방식 및 불평사항은 적합도, 중요도, 현재 사용여부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보였으나 상담비용, 상담자 전문성은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넷째,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슈퍼비전연구는 8편(14.3%)으로 상담자 전문성 수준에 따라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손현동 등, 2008; 진명식, 2008), 아동상담자의 윤리적 실천행동과 관련된 변인인 심리내적 특성을 탐색한 연구(유재령, 2008)와 윤리적 실천행동과 교육훈련배경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유재령, 김광웅, 2008), 상담자 특성에 따라 상담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분석한 연구(김은하, 2015; 김하영, 2014; 서지윤, 2015), 슈퍼바이저들이 경험한 슈퍼비전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조사한 연구(방기연, 2012)가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재령(2008)은 아동상담자의 교육 훈련 배경과 심리내적 특성 변인이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이전 연구(유재령, 2006b)의 후속연구로 관리능력, 직무스트레스, 의욕상실의 3가지 심리내적 특성 변인 중 특히 역전이 관리 능력과 의욕 상실이 아동상담

자의 윤리적 실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유재령과 김광웅(2008)은 아동상담자의 교육훈련배경(예., 학력, 최종 학위의 전공, 주요치료개입 방식, 자기분석과 슈퍼비전 경험)에 따른 윤리적 실천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며,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는 충분한 학위 수준과 적합한 전공 선택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손현동 등(2008)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학교상담자의 전문성 수준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 상담자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같은 상황을 개념화하는 인지적 개념이 복잡해지고, 대처방안의 내용과 다양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방기연(2012)은 슈퍼바이저들이 경험한 슈퍼비전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조사한 연구에서 슈퍼비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윤리문제로 ‘슈퍼바이저가 수련생을 불성실하게 지도감독하는 것’, ‘실습시간에 비해 슈퍼비전이 충분치 못한 것’, ‘수련생에게 상담사례가 부적절하게 배정되는 것’, ‘슈퍼바이저와 수련생간의 인간적인 갈등’, ‘부적절한 상담수련생을 선별하는 것’, ‘수련생과 슈퍼바이저가 이중관계를 형성하는 것’, ‘슈퍼바이저가 윤리전반을 숙지하지 못하는 것’, ‘함량미달인 수련생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추천하는 것’ 등의 8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상담과정/성과연구, 내담자 특성 및 권리연구,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이론개발연구는 각각 2편씩(3.6%)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상담이나 특정한 개입 처치의 직접적인 효과나 성과를 검증하는 상담성과 연구로, 박복숙(2011)은 아동의 집단상담에서 이중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집단과 비이중관계에서의 집단상담의 효과성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회복지현

장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중관계에서의 집단상담과 비이중관계에서의 집단상담 모두 상담에 긍정적인 효과(예., 집단응집력 향상, 친사회성 행동 증진)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조화진(2014)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를 통해 내담자의 개인적인 삶에 적극적이고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상담자의 행동(예., 식사대접, 선물교환, 구체적 진로가이드, 육아정보 제공 등)이 상담자의 경계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윤리적 측면에서의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다루었다. 한편 내담자 특성 및 권리에 관한 연구로 김인규(2004)는 주요 상담관련 학회의 윤리강령에 제시된 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내담자의 권리(상담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상담과정에 참여할 권리, 의사결정의 권리, 동의능력 결여시의 권리 등)를 분석하고 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상담구조화, 주지된 동의, 윤리문제 해결절차 수립, 상담자 교육 및 연구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박외숙(2008)은 8주간의 강의식 교육과 7주간의 집단상담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촉경계유형인 내사와 융합 수준, 집단상담자와의 잠재적 이중관계(예., 전문적, 재정적, 중복적, 사교적, 부수적, 가족적, 개인적, 친밀한 상황)에 대한 윤리적 인식을 측정한 결과, 내사성향이 높을수록 비이성적인 이중관계에 대해 윤리적으로 더 관용적인 평가를 내렸고 융합성향은 이중관계에 대한 윤리인식과 낮은 상관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상담윤리와 관련된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는 외국 선행연구의 척도문항을 토대로 윤리강령과 국내 예비조사의 내용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구성한 아동상담자의 윤리적 신념척도 개발 연구(유재령, 2006a)와 아동상담자의 윤리적 실천 행동척도 개발 연구(유재령,

김광웅, 2006b) 두 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담윤리와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의 정리 및 분석을 넘어선 새로운 관점이나 이론, 개념 틀을 제시한 이론개발 연구로서 기존의 철학적 논의를 토대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한 김형수와 김옥진(2009)의 연구와 선행 연구에서 개관한 의사결정 모델을 참고하여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윤리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한 서영석 등(2010)의 연구 두 편이 확인되었다.

연구대상별 동향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윤리 연구의

경우 전체 연구의 94.6%(53편)가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내담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타 연구가 각각 1편씩(1.8%)이었다.

상담자의 세부 분류를 보면 초보상담자를 포함한 일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6.5편(47.3%)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1편(19.3%), 아동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6편(10.6%), 청소년 동반자를 포함한 청소년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편(5.3%)이었다. 그밖에 집단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3.5%), 가족폭력상담자, 남성치료자, 놀이치료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각 1편(1.8%)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대상별 연구 논문 수

연구대상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내담자	기타	계
논문편수	53	1	1	1	56
%	94.6	1.8	1.8	1.8	100.0

표 5. 상담자 세부분류별 연구 논문 수

연구대상	일반 상담자	학교 상담자	아동 상담자	청소년 상담자	집단 상담자	가정폭력 상담자	남성 치료자	놀이 치료사	기타	계
논문편수	26.5	11	6	3	2	1	1	1	1	56
%	47.3	19.6	10.7	5.4	3.6	1.8	1.8	1.8	1.8	100.0

표 6. 연구방법의 세부분류별 연구 논문 수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계
	변량	상관	회귀	요인	기타	내용분석	개념도			
논문편수	32	5.5	2.5	4	2	2	5	3	56	
%	57.1	9.8	4.5	7.1	3.6	3.6	8.9	5.4	100	
계	32(57.1)		16(28.6)			5(8.9)		3(5.4)		56(100)

연구방법별 동향

연구방법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논문 중 문헌연구 논문이 총 32편(57.1%)으로 가장 많았고, 양적연구는 총 16편(28.6%)이었다. 질적연구는 5편(8.9%), 통계분석과 질적 연구 통합 형태의 혼합연구는 3편(5.4%)으로 문헌연구나 양적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문헌연구의 경우 32편 모두 기존의 문헌이나 연구를 검토하여 고찰한 리뷰연구로, 학회의 자격규정이나 윤리강령을 검토한 연구(33.9%),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개관하거나 적용한 연구(8.9%), 상담자의 윤리적인 태도나 상담자 윤리교육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피력한 연구(14.3%)로 나타났다. 양적연구 16편에서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변량분석 계열(t-검증 및 ANOVA 등)이 9.8%로 가장 많았고 회귀분석(7.1%), 상관분석(4.5%), 요인분석(3.6%)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의 경우, 5편 모두 내용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밖에 양적·질적 혼합연구로 분류한 3편(손현동 등, 2008; 진명식, 2008; 조화진, 2014)의 연구 모두 질적 자료를 1차적으로 수집하고 도출된 개념을 양적으로 재수집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개념도 연구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담윤리 연구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흐름과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상담윤리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상담윤리를 주제로 발간된 학술지 게재 논문

및 학위논문 56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연도별 논문 수는 2000년대 이전에는 1991년 1편의 학위 논문(김은희, 1991)을 시작으로 1998년 2편의 학술지 논문이 발표된 것이 전부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상담윤리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상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를 존중하는 상담자들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음(강진령 등, 2009)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상담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자 중 많은 수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상담자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담윤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우홍련 등, 2015).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윤리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짐을 고려할 때, 상담자 윤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 특정윤리주제를 개관한 연구가 38.4%(21.5편)로 가장 많았고, 윤리강령·법·제도 연구가 17%(9.5편),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가 16.1%(9편), 상담자 특성·훈련 및 슈퍼비전연구가 14.3%(8편)로 그 뒤를 이었으며, 상담과정/성과연구, 내담자 특성 및 권리연구,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이론개발연구는 각각 3.6%(각 2편)를 차지했다. 연구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특정윤리주제 개관연구에

는 상담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비밀보장, 사전 동의, 다중관계, 자살개입, 윤리적 의사결정모형, 상담자의 전문적 태도 등을 고찰하거나 중요한 몇 가지의 윤리적 주제를 함께 개관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 주제들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집단상담(고향자, 김소라, 2008; 방기연, 2004), 학교상담(이종연, 2005; 손현동, 2007; 최선 등, 2012), 가정폭력상담(신선인, 황혜숙, 2003), 남성치료자의 입장(유영달, 2006) 등 특수한 상황에서 상담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한 시점인 2005년을 전후하여 학교상담자들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특정 윤리주제를 다루고 있는 최근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활 상담, 상담의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이슈들, 다양한 현장에서의 다중관계 등 연구 주제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활 상담 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치료의 경험적 방법, 그룹과 가족 상담, 장애에 대한 진단, 내담자의 복지, 연계와 종결, 고용관계 등의 다양한 이슈들에서 상담자를 전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윤리적,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예; Barros-Bailey, 2015; Tarvydas & Cottone, 2000). 또한 온라인 상담(Shaw & Shaw, 2006)과 Hotline 상담(Thomason, 2005)에서의 윤리적 문제, 다문화적 상담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Garcia, Cartwright, Winston, & Borzuchowska, 2003), 노인 상담에서의 독특한 요구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Schweibert, Myers, & Dice, 2000), 소수 인종

(Zirkle, 2000), 시골지역에서의 상담(Cares & Keim, 2012), 중독 상담(Scott, 2000), 다른 상담자에게 연계하는 경우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들(Entis, 2014), 학교에서 학생들의 위기행동에 대한 알릴 의무의 윤리적 문제(Moyer, Sullivan, & Growcock, 2012) 등 연구자들의 관심이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상담의 실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의 이러한 연구 경향은 국내의 상담윤리 연구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보면, 해외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다문화적 이슈들, 성적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의 자원 부족으로 인한 연계의 문제, 기업이나 학교 등 기관에 속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윤리적 갈등 등 다양하고 특수한 갈등 상황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더욱 다양한 관점과 특수한 현장의 윤리적 이슈들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별 분포를 보면, 주로 상담자의 윤리적 관점이나 책임을 다루고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94.6%(53편)를 차지하였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상담관련 학회의 윤리규정에서도 상담자의 책임과 함께 내담자의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담윤리 연구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외숙(2008)은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단참가자의 내사 성향이 높을수록 비성적 이중관계 상황에 대하여 허용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 해석과 함께 집단상담자가 참가자들의 욕구를 이

해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상담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상담자의 책무를 내담자에 대한 존중에서 나아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과 욕구를 이해하는 측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의 인식과 달리 내담자의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효과적인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윤리사항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외의 경우,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고려사항을 검토한 연구(White, McCormick, & Kelly, 2003)와 진단과 사례개념화 과정에서의 윤리적 이슈들(Dougherty, 2005),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관련된 내담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Johns, 2015)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내담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아직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연구 현황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상담자의 경험과 함께 내담자의 경험에서 상담윤리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방법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헌연구가 총 32편(57.1%)으로 가장 많았고, 양적 연구는 총 16편(28.6%)이었으며, 질적연구는 5편(8.9%), 양적·질적 혼합연구는 3편(5.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서 진행된 상담윤리 연구의 절반 이상이 문헌연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발표된 논문, 학술지, 서적 등의 문헌자료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종합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주제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문헌연구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이군희, 2014), 이제 막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담윤리 연구에서 윤리강령 또는 윤리적 의사결정모형을 개관하거

나 특정 윤리주제들의 개념적 이해를 위한 문헌연구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헌연구는 전반적인 윤리쟁점에 대한 자격규정이나 윤리강령을 검토한 리뷰연구에 치우쳐져 있어 경험적으로 이루어진 특정 윤리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심층 분석, 윤리적 딜레마가 있는 가상사례에 대한 접근방법 제시 등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문헌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들이 상담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상담실체에 구체적인 윤리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와 양적·질적 혼합 연구의 수가 많지 않고, 세부적인 연구방법 또한 내용분석이나 개념도 방법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아직 상담윤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상담연구 전반에서 익숙한 양적연구 방법론을 선호해 온 연구 전통의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간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세계에 대한 탐구를 지향하는 상담의 특성과 특히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심리 내면적 현상을 확인하려면, 상담실체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갈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나 사례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상담자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연구들에서 대부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자가 각기 다른 특수한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내담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미성년자 상담이나 상담자의 가치와 소속 기관의 규정이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복잡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상담자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반영하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령 등(2007)은 학교상담자들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학교의 문화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우리나라 문화적 배경에 적용되는 윤리적 대처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서영석 등(2009)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문화가치를 반영하는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들이 개발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상담의 실제적 맥락을 반영하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현상과 절차들이 밝혀질 때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한 상담자의 심리적 부담감은 줄어들고, 윤리적 판단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많은 연구에서 상담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 상담자들의 상담윤리 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강진령 등, 2007; 우흥련 등, 2015)에서 정규과목으로 상담윤리 교육을 받은 경우는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했으며, 앞으로 바람직한 상담윤리 교육 형태로 정규과목 수강을 선택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담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위원회(CACREP)의 핵심 교육과정 기준에 직업에서의 윤리적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담 훈련 프로그램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Corey et al., 2011). 또한 Schultz(2011)는 22개 항목으로 구

성된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원칙 척도(SPES)를 타당화하여 발표하였고, Remley와 Herlihy(2016)는 상담자 윤리를 다룬 서적을 통해 사전동의나 녹음과 슈퍼비전 동의서 등 상담 실제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상세한 양식들을 제공함으로써 상담자들의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영석 등(2009)은 서로 다른 윤리적 원칙들이 충돌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윤리적 감수성이 상담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이나 윤리강령을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속한 집단의 문화적 가치, 상담자 개인의 성향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반성적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상담자 윤리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내담자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민감성과 윤리적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담관련 학과 정규과목에 상담윤리 과목 개설,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맥락을 고려한 사례 토의를 포함한 체계적인 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윤리강령의 현실적 개정과 홍보 방안 마련 등 상담윤리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상담자의 윤리적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척도와 자기평가 도구의 개발 등 윤리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심층적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상담윤리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 자료의 선정과 분류 기준 적용에 있어 제한점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자료 선정과정에서 다양하고 특수한 관점으로 기술된 연구들 속에서 분석대상 포함여

부의 판단에 대한 모호함, 그리고 국내 상담 윤리 동향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제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상담 윤리 영역의 연구의 현재를 확인하고, 연구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진령, 유형근 (2003). 학교상담에서의 비성적 이중관계 문제와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4(4), 831-843.
- 강진령, 이종연, 손현동 (2007). 학교상담자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과 대처방법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5(1), 17-27.
-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7). 학교상담자 윤리 교육 및 인지 실태 분석. *상담학연구*, 8(2), 751-768.
-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9). 상담자 윤리. 서울: 학지사.
- 고향자, 김소라 (2008).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 윤리에 대한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9(1), 49-72.
- 고향자, 현선미 (2008). 청소년 상담의 사전동의에 관한 고찰. *상담학연구*, 9(1), 45-65.
- 고홍월, 홍지선, 전호정, 조수연 (2015). 집단수퍼비전의 연구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16(2), 97-119.
- 공운정 (2008). *상담자윤리*. 서울: 학지사.
- 곽미용, 이영순 (2010). 상담자 자격의 윤리적 문제. *인문학논총*, 15(1), 235-253.
- 구승영 (2013). 윤리적 입장에 따른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강일 (2015). 상담자 자기개방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8(1), 37-53.
- 김광웅, 최명선, 류진아, 정유진 (2006). 아동상담연구동향: 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1997-2005). *놀이치료연구*, 9(3), 47-65.
- 김미리혜 (1998). 임상현장에서의 윤리강령: 해설과 제안. *학생생활연구*, 14, 27-37.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옥진, 김형수, 김기민, 장성화 (2011). 상담윤리 결정모델을 통한 상담자 윤리교육의 필요성. *한국교육논단*, 10(1), 141-168.
- 김은하 (2015). 상담자의 도덕적 정서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 전문직업의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하, 박승민 (2011).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25.
- 김은희 (1991). 상담윤리 결정을 위한 준거로서 상담 윤리요강의 방향모색.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규 (2004). 내담자의 권리에 대한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5(4), 19-36.
- 김태호 (2009). 상담의 윤리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적 접근. *다문화교육연구*, 2(1), 54-76.
- 김하영 (2014). 전문상담교사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행동과 윤리적 가치관,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수, 김옥진 (2009).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

- 모형: 철학적 논의와 사례 적용. 상담학연구, 10(2), 701-717.
- 김화자 (2014). 한국과 미국의 상담윤리규정 비교 연구. 복음과 상담, 22(1), 9-50.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박미라 (2014). 상담에서 청소년자살사후개입 연구. 신학과 실천, 42, 357-378.
- 박복숙 (2011). 아동집단상담에서 이중관계 집단과 비이중관계 집단의 상담효과 비교.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외숙 (2008). 집단참가자의 접촉경계유형과 잠재적 이중관계에 대한 윤리의식. 상담학연구, 9(2), 501-515.
- 박외숙, 고향자 (2007). 비성적인 이중관계의 윤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863-887.
- 박한샘, 공윤정 (2011). 청소년동반자의 윤리적 갈등경험과 대처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2(3), 771-791.
- 방기연 (2004). 집단상담에서의 상담 윤리강령. 연세교육연구, 17(1), 99-111.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방기연 (2012). 상담 수퍼비전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 가족과 상담, 2(1), 1-16.
- 서영석, 최영희, 이소연 (2009). 상담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15-842.
- 서영석, 이소연, 최영희 (2010). 삶의 마지막에 관한 결정을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075-1102.
- 서지운 (2015). 직업상담서비스분야 직무별 Holland 코드를 이용한 종사자의 직업윤리갈등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현동 (2007). 현행법에 나타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과 그 한계 고찰. 청소년상담연구, 15(2), 3-14.
- 손현동 (2012). 학교상담자의 자문 관계에서의 윤리 문제와 고찰.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12(3), 265-286.
- 손현동, 진명식, 유형근 (2008). 학교상담자의 전문성 수준에 따른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개념화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9(4), 1801-1817.
- 송동림 (2007). 상담윤리에 대한 고찰. 광주가톨릭대학교 논단, (158), 48-73.
- 신선인, 황혜숙 (2003). 가정폭력상담의 윤리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9(4), 395-415.
- 우홍련, 허난철, 이지향, 장유진 (2015). 한국 상담자들이 경험한 윤리 문제와 대처 방법 및 상담 윤리 교육에 관한 실태 연구. 상담학연구, 16(2), 1-25.
- 유영달 (2006). 전문가 윤리와 남성 치료자의 윤리적 전문직업적 위기.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2), 53-89.
- 유재령 (2006a). 아동상담자의 윤리적 신념 척도 개발 연구. 놀이치료연구, 9(1), 67-90.
- 유재령 (2006b). 아동상담자의 윤리적 실천행동 관련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재령 (2007). 아동상담자 윤리강령에 나타난 기본 윤리영역 연구. 놀이치료연구, 10(1), 1-18.
- 유재령 (2008). 아동상담자의 심리내적 특성이 윤리적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

- 치료학회지, 11(3), 13-32.
- 유재령, 김광웅 (2006a). 내용분석을 통한 아동 상담자의 주요 윤리적 딜레마 상황과 대처 행위. 아동학회지, 27(2), 127-151.
- 유재령, 김광웅 (2006b). 아동상담자의 윤리적 실천행동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73-398.
- 유재령, 김광웅 (2008). 아동상담자의 윤리적 실천행동 관련변인으로서 교육훈련배경. 아동학회지, 29(1), 133-153.
- 윤영대 (2006). 현대상담의 윤리적 문제와 바람직한 상담자 윤리 연구. 진리논단, 626-643. 천안대학교.
- 이군희 (2014). 연구방법론의 이해. 서울: 북넷.
- 이동혁, 유성경 (2000). 상담연구의 주제 및 연구대상 분석: 학위 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8), 37-58.
- 이종연 (2005). 학교상담자에게 특수한 윤리적 책임. 교육연구논총, 26(3), 119-133.
- 이지은 (2014). 교장, 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인식 분석에 기초한 전문상담교사 역할 모형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향연 (2014). 철학상담 방법론 논의에 있어서 상담윤리 모형 도입의 필연성. 동서철학연구, 71, 389-406.
- 이현림, 김영숙 (1998). 집단상담의 윤리 문제에 대한 고찰. 새마을지역개발연구, 22, 21-43.
- 임인구 (2010). 실존 철학에 기반한 상담자의 윤리적 조건.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학의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논문(창간년도~2009). 상담학연구, 11(2), 507-524.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조항, 김계현, 이자명 (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4), 2099-2113.
- 조화진 (2014). *(A) Study on Korean counselors' perceptions of real relationship in counseling*.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명식 (2008).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수준에 따른 갈등상황에 대한 윤리적 추론 능력 차이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국환 (2014).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및 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실천적 과제. 직업재활연구, 24(3), 105-127.
- 최 선, 고유림, 박정은, 신예지, 강민철 (2012). 학교상담자 윤리강령에 대한 고찰: 학교상담학회 윤리강령 개정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05-524.
- 최원호 (2004). 상담윤리의 개념정립과 교육내용 구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혜림 (2002). 한국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05-828.
- 최혜림 (2006). 자살위험이 있는 내담자와 상담윤리 문제. 한국정신치료학회지, 20(1), 23-29.
- 최혜림, 이수용, 금명자, 유영권, 안현의 (2010). 전문적 상담현장의 윤리. 서울: 학지사
- 하혜숙, 조남정 (2012). 개인상담 사전동의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3(3), 1101-1118.

- 홍기묵, 김광웅 (2012). 상담자의 자기돌봄에 대한 개념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고찰.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2), 153-177.
-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2009). <http://www.krcpa.or.kr>에서 2015. 9. 1 자료 얻음.
-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2011). <http://www.counselors.or.kr>에서 2015. 9. 1 자료 얻음.
- Anderson, D., & Freeman, L. T. (2006). Report of the ACA Ethics Committee: 2004-2005.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4(2), 225-227.
- Barros-Bailey, M. (2015). Ethics and the Family in Rehabilitation Counseling. *Journal of rehabilitation*, 81(2), 32-38.
- Buboltz, W. C., Miller, M. Jr., & Williams, D. J. (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496-503.
- Cates, K. A., Gunderson, C., & Keim, M. A. (2012). The Ethical Frontier: Ethical Considerations for Frontier Counselors. *The Professional Counselor*, 1(1), 22-32.
-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2007).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7th ed.)*. Thomson, CA: Brooks/Cole.
-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2011).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8th ed.)*. Cengage Learning, CA: Brooks/Cole.
- Cottone, R. R., & Claus, R. E. (2000). Ethical decision-making model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3), 275-283.
- Cottone, R. R., & Tarvydas, V. M. (2007). *Counseling ethics and decision making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Merrill/Prentice-Hall.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ougherty, J. L. (2005). Ethics in Case Conceptualization and Diagnosis: Incorporating a Medical Model Into the Developmental Counseling Tradition. *Counseling and Values*, 49(2), 132-140.
- Entis, J. J. (2014). *A mixed methods analysis of the ethics of behaviors and attitudes towards making referrals in psychotherapy*. Doctoral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Massachusetts. USA.
- Garcia, J. G., Cartwright, B., Winston, S. M., & Borzuchowska, B. (2003). A transcultural integrative model for ethical decision making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3), 268-277.
- Hill, A. L. (2004). Ethics education: Recommendations for an evolving discipline. *Counseling and Values*, 48(3), 183-203.
- Johns, A. E. (2015). *Ethical Decision Making of Counseling Mental Health Practitioners Working With Clients Right-to-Die Issu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Orleans. Louisiana. USA.
- King, J. H. (2012). *How ethical codes define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Minnesota. USA.
- Kitchener, K. S. (1984). Intuition, critical evaluation and ethical principles: The foundation for ethical decisions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3), 43-55.
- Kitchener, K. S., & Anderson, S. K. (2014).

- Foundations of ethical practice, research and teaching in psychology and counseling (2nd ed)*. New York, NY: Brunner-Routledge.
- Knapp, S. J., & VandeCreek, L. D. (2006). *Practical ethics for psychologists: a positive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ocet, M. M. (2006). Ethical Challenges in a Complex World: Highlights of the 2005 ACA Code of Ethic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4*(2), 228-234.
- Kocet, M. M., & Freeman, L. T. (2005). Report of the ACA Ethics Committee: 2003-2004.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3*(2), 249-252.
- Moyer, M. S., Sullivan, J. R., & Growcock, D. (2012). When is it Ethical to Inform Administrators about Student Risk-Taking Behaviors? Perceptions of School Counselo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5*(3), 98-109.
- Pope, K. S., & Vasquez, M, J, T. (2010). 심리치료와 상담의 윤리학[*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 practical guide(3rd ed.)*]. (박균열 외 역). 서울: 철학과현실사. (원전은 2007에 출판).
- Remley, T. P., & Herlihy, B. (2016). *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issues in counseling(5th ed)*. Boston: Pearson
- Sanabria, S., & Freeman, L. T. (2008). Report of the ACA Ethics Committee: 2006-2007.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6*(2), 249-252.
- Schultz, J. C. (201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Supervisor Principle Ethics Scale. *Australian Journal of Rehabilitation Counselling, 17*(2), 96-105.
- Schweibert, V. L., Myers, J. E., & Dice, C. (2000). Ethical Guidelines for Counselors Working With Older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2), 123-129.
- Scott, C. G. (2000). Ethical issues in addictions counseling.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3*(4), 209-214.
- Shaw, H. E., & Shaw, S. F. (2006). Critical Ethical Issues in Online Counseling: Assessing Current Practices With an Ethical Intent Checklis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4*(1), 41-53.
- Tarvydas, V. M., & Cottone, R. R. (2000). The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Rehabilitation Counselors: What We Have and What We Need.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3*(4), 188-196.
- Thomason, J. (2005). Ethical and Legal Issues in Hotline. Counseling. *Objector, (2)*, 8-10.
- Urofsky, R. L., Engels, D. W., & Engebretson, K. (2008). Kitchener's Principle Ethic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Research. *Counseling and Values, 53*(1), 67-78.
- Welfel, E. R. (2002). *Ethics in counseling & psychotherapy: standards, research, and emerging issues (2n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Welfel, E. R. (2006). *Ethic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standards, research, and emerging issues (3rd ed.)*. Thomson, CA: Brooks/Cole.
- White, V. E., McCormick, L. J., & Kelly, B. L. (2003). Counseling Clients Who Self-Injure: Ethical Considerations. *Counseling and values, 47*(3), 220-22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Williams, C. B., & Freeman, L. T. (2002). Report of the ACA Ethics Committee: 2000-2001.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2), 251-254.

Zirkle, D. S. (2000). *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Code of Ethics and Racial Minorities: Does the Code Address the Critical Issu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vada, Nevada, USA.

원 고 접 수 일 : 2016. 01. 06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3. 17

게 재 결 정 일 : 2016. 03. 24

The Trends and Issues of Research on Counseling Ethics in Korea

Song-Hee Oh

Jung-A Lee

Eun-Ha Kim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and issues of research on the counseling ethic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future study. The research subjects, objects and methods of 56 counseling ethics studies, published from 1991 to 2015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consistently since the early 2000's. Second, the research primarily reviewed the following: ethical issues (38.4%), ethical codes · law · policy (17%), case and research (16.1%), counselor trait, training and supervision (14.3%), process/outcomes (3.6%), client trait and rights (3.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sts and measures (3.6%), and development of theory (3.6%). Third, common research objects were counselors. Fourth, most of the research utilized literature review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urrent issues in the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Ethics of Counselor, Counseling Ethics, research trends, ethical decision making, ethical dilemma*